



미국 피바디자연사박물관 전경

미국 피바디자연사박물관

# 120년 전통 ... 세계 최대 대학박물관

미국 동부의 95번 하이웨이를 따라 뉴욕에서 북동쪽으로 한시간쯤 달리면 느릅나무 가로수와 고딕 풍의 건물들이 인상적인 코네티컷주(州)의 뉴헤이븐(New Haven)에 들어서게 된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롱아일랜드해협 북쪽 해안에 위치한 인구 약 12만의 대학도시 뉴헤이븐은 뉴욕에서 멀지 않고 아이비리그 중의 하나인 예일대학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1701년에 개교한 예일대학의 과학광장에는 전 세계의 대학 자연사박물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피바디자연사박물관(Peabody Museum of Natural History)'이 자리잡고 있다.

## 1876년 예일대 과학광장에 세워

지금으로부터 2백년 전인 1802년부터 예일대학의 자연사학과 교수였던 실리만(Benjamin Siliman)이 지질학 및 광물학 분야의 표본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많은 양의 표본이 축적되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1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자수성가한 사업가 피바디(George Peabody)가 1866년 예일대학에 15만달러를 기부함으로써 피바디자연사박물관이 설립된 것이다. 10년간의 공사로 1876년에 문을 열었지만, 1917년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이 철거되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건물의 착공이 지연되다가 1925년에 이르러서야 본관인 그레이트홀(Great Hall)이 완공되었으며, 1931년에 거대한 초식공룡 브론토사우루스(Brontosaurus)의 골격이 조립·전시되었다. 1942년부터 1947년 사이에는 잘링거(Rudolph F. Zallinger)에 의해 피바디자연사박물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길이 약 36m, 높이 5m의 '파충류의

시대(The Age of Reptiles)'를 비롯한 각 시대별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벽화들이 완성되었다.

피바디자연사박물관은 대학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9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 중 50명이 정식 큐레이터(curator)로 근무하고 있다. 이곳의 연구 및 전시영역은 크게 광물학, 고생물학, 생물학, 인류학 및 과학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물학 분야는 광물 및 암석을 연구하는 광물학연구실과 운석학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고생물학 분야는 무척추고생물학, 척추고생물학 및 고식물학(식물학 포함)연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물학 분야는 곤충학, 무척추동물학 및 척추동물학(양서류, 파충류, 어류, 포유류, 조류 포함)으로 세분된다. 이밖에도 물리학,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및 공학과 관련된 각종 과학사물을 수집하는 과학사 분야와 약 26만점의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인류학 분야가 있다.

모든 자연사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표본의 체계적인 수집과 함께 과학적인 보존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표본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출판물이나 전



무척추동물화석 연구실의 내부모습

미국의 피바디자연사박물관은 예일대학의 과학광장에 세워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학박물관이다. 1876년 개관하여 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광물학, 고생물학, 생물학, 인류학 및 과학사 분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시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피바디자연사박물관은 천백만점 이상의 자연사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1만종 이상의 모식표본(type specimen)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곳에서 전시에 활용되고 있는 표본의 수는 전체 표본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박물관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큐레이터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오라마의 벽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석모형 및 각종 과학교재와 도구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다른 박물관과 전시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소장한 표본의 1% 정도만 전시

피바디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연사표본류 중에서 광물표본은 약 3만5천점에 이르며, 운석표본만 해도 1807년에 수집된 7백42kg의 철운석을 포함하여 수천점에 이른다. 화석표본은 약 4천여점의 신종을 포함한 4백만점의 다양한 무척추동물 화석, 5만5천점 이상의 척추동물화석 및 12만5천점의 식물화석이 있다. 현생 생물표본의 경우에는 주로 대서양에서 채집한 약 3백만점의 산호와 해면동물물을 비롯하여, 1백만점 이상의 곤충표본,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및 북미 내륙에서 채집한 약 10만여점의 어류표본, 대부분 박제표본으로 제작되어 있는 6천5백여종(12만3천여점)의 조류표본, 주로 북미에서 채집한 2백50종(5천4백여점)의 양서류표본, 약 7백종(9천여점)의 파충류표본, 고릴라 등 1만여점의 포유동물표본 및 세계 각지에서 채집한 35만점 이상의 건조식물표본을 갖고 있다.



이집트전시관의 모습

피바디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지질학, 고생물학 및 생물학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과학프로그램'과 미국의 역사 및 문화를 학습하는 '역사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과학프로그램은 북미와 코네티컷주의 동식물, 생태계, 공룡, 진화, 멸종, 지질학 및 광물학입문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교육프로그램은 주로 북미의 원주민과 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교육은 사전 예약을 통해 그룹단위로 이루어진다. 한편, 피바디자연사박물관에서는 각 분야의 우수한 큐레이터들과 연구원들이 소장 표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들은 매년 단행본으로 발행되어 다른 전문가들의 연구에 비중있게 인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이야말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충실한 연구야말로 항상 관람객이 스스로 찾게 하는 전시품을 만들고 늘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⑤7

李 貞 九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연구사>